

식품위생법 · 수입식품법 · 원산지표시법 위반 “게 셋거리”

식품안전 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권익위 · 농식품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해수부 등 합동 이달 한달동안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한 달동안 국민의 먹거리 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 운영 방침을 밝혔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범위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다.

- 무신고 수입식품 유통 판매 행위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수입식품 판매 행위 등 △원산지표시법 위반행위 - 원산지 표기 거짓 훈동 표시, 원산지 위장 조리, 판매 제공 행위 원산지 위장 목적 원산지 표시 손상 변경 보관 진열 원산지가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 혼합 조리 판매 제공 등이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김영태 기자

국민연금, 기금이사 공개모집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지난달 28일 기금이사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기금이사 후보자를 10월 3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알렸다.

지원자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 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오는 11일 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추천위원회((우)5487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추천위원회(7층 인사혁신실))에 제출하면 된다.

기금이사추천위원회는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실시하고 복수의 후보자를 이사장에게 추천하고 이사장은 추천안과 계약서 인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면 이사장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기금이사 공모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참조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북·중미 현지 바이어 수출상담회가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열렸다.

<사진=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제공>

미국·멕시코 입찰 주문 MOU 3건 체결

서부산립청,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서부산립청(청장 황성태)은 지난 28일 광한루원에서 규제혁신 협장 지원센터 운영과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규제혁신 협장지원센터에서는 광한루원을 찾는 국민들에게 규제혁신 사례에 대한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전달하고 신뢰분야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직자의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갑질근절 사례 등을 소개하며 대국민 홍보 효과를 높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경진원, 전북 우수상품 기업과 북·중미 현지 바이어 수출상담회 참가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은 전북 우수상품 기업과 북·중미 현지 바이어 수출상담회를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무시무기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현지 수출 상담회는 북미 유통 및 물류의 중심지인 아틀란티카와 중미 최대 시장인 멕시코의 효과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추진됐으며, (주)동립파마텍 등 9개사가 참석해 관련사업에 대한 상담(계약이나 수출을 목적으로 상담한 금액) 760만불 등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주사기를 생산하는 (주)동립파마

테는 미국과 멕시코 내 정부사업 입찰 과 허가 후 주문을 위한 MOU 3건(주사기 사업 입찰과 허가 후 주문을 위한 업무협력 관계) 체결해 미국과 멕시코에 적극적인 판로 개척의 발판을 열었다.

현지 상담회를 통한 경진원은 (주)씨티엔에스 5,000불, 피에스비베이오후주 3,000불, 오프그리드 6,000불의 샘플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시작인 성과를 이뤄냈고 샘플계약 후 본계약으로 성사되는 확률은 높아 추후 확대 될 전망이다.

/김영태 기자

맛있고 매력있는 농식품 ‘총집합’

농진청, 2~5일 ‘강소농대전’ 개최



영농 규모는 작지만 지속적인 역량개발을 통해 강한 농업경영체로 발전하고 있는 전국의 우수한 ‘강소농(強小農)’들이 소비자와 만날 채비를 미쳤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오는 29일부터 5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 전시관 B홀에서 ‘강소농과 소비자가 함께 여는 내일의 농업’이라는 주제로 ‘2022 제8회 강소농대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강소농대전은 각 지역에서 우수 강소농으로 추천된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이며 판매와 소통, 접점을 강화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올해는 272개 강소농이 참여해 총 157개의 농식품 전시·판매 공간을 운영한다. 5개 분야 △신선식품 △전통식품 △건강식품 △최신농식품 및 신기술 시제품 △음료·간식·주류로 공간을 구성해 농식품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객을 위한 행사도 다채롭다. 일睹하게 된 신선 농산물과 농식품을 할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행운상자’ 뽑기, 농식품을 구매했다

면 추가로 소정의 상품을 받을 수 있는 놀이를 진행한다. 또한 신선 농산물을 활용해 취향에 맞는 나만의 음료를 만들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1년부터 작은 규모의 농가도 충분히 소득을 창출하는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중소 규모 농가를 선발해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중소 규모 농가가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신 농업기술, 온라인 판촉(마케팅)기법, 사업유형(비즈니스 모델) 구축, 경영전략 수립에 이르기 까지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과 전문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까지 육성한 전국의 강소농은 8만 8,000여 농가에 이른다. 각 강소농 자체업체는 농산물과 가공품 판매를 위한 고유의 상표(브랜드)를 만들고, 온라인 판매처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둘째 성장하고 있고 농가소득도 평균 10.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 조은희 기술보급과장은 “강소농대전은 치열화된 경쟁력을 가진 농업경영체가 더 많은 소비자와 만나는 기회이다. 방문객에게 우수 농식품을 소개해 농업의 위상을 알리는 행사이다.”며 “올해는 소비자와의 접점을 높인 디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 만큼 방문객 만족도도 높을 것이다”고 말했다

방산시설 전기안전 확보 방안 논의

전기안전공사, 간담회 열어… 현장 애로사항 청취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지난달 28일 경남 창원시 소재 경남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전종성 부시장과 방위산업진흥회 회원사 25개사의 시설관리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산시설 전기안전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5월 공사와 방위산업진흥회가 체결한 국가 기간사업의 발전과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방위산업 시설의 안전강화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차원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산업 재해 예방 및 안전사고 사례,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 위험성 진

단’에 대한 발표와 함께 현장의 애로 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종성 부시장은 “방위산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앞선 노력을 펼쳐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 씻기·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